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The Introduction to Monk Hongcheok's Namjongseon and His Response to Reality

저자 (Authors)	정동락 Jung Dong-lak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22), 2011.8, 331-371 (41 pages) SILLASAHAKPO , (22), 2011.8, 331-371 (41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74
APA Style	정동락 (2011).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신라사학보, (22), 331-3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정 동 락**

I. 머리말	IV. 홍덕왕의 남종선 수용과 홍척의
II. 입당유학과 귀국	대응
III. 남악에서의 실상산문 개창	V. 맺음말

【국문초록】

實相山門은 소위 9山禪門 중 가장 먼저 개창된 禪宗山門이다. 그 開創祖인 洪陟은 道義와 함께 선종 初傳僧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글은 홍척 선사가 신라하대 선종의 전래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홍척은 대략 77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840년경에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826년(홍덕왕 1)경에 귀국하여 南岳의 實相寺에 주석했다. 이후 830년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영남대, 2010)의 제Ⅱ장 2절 <證覺 洪陟의 南宗禪 傳來와 公認>을 수정·보완하였다.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 <‘신라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다 - 신라사학회 연구발표회 100회에 즈음하여 -> 《新羅史學報》 20, 2010 : <新羅 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 <신라하대 禪宗史 시기구분 試論> 《大丘史學》 103, 2011 외 다수

(흥덕왕 5)경 흥덕왕과 宣康대자(金忠恭)의 초빙으로 왕실에 방문하여 說法하였고, 흥덕왕은 그를 國師로 책봉했던 듯하다. 홍척은 흥덕왕에게 자신이 전해온 선종의 내용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조언하였다.

흥덕왕이 홍척에게 귀의하고 南宗禪을 받아들인 배경은 金憲昌의 난(822년)으로 촉발된 지방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사상적 뒷받침을 위해 홍척이 전해온 선종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불교계의 일신을 위해 선종사상과 교단의 운영방식에 공감했던 듯하다.

한편, 홍척은 선종의 수용을 위해서는 신라왕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왕실을 통해 선종을 확산시키고자 했으며, 흥덕왕의 개혁정치에도 협조하였다. 아울러 선종에 대한 기존 불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敎學을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특히, 대중교화를 위해 실상사에 鐵佛을 조성하는 등 방편을 채용하였다. 이는 자신보다 앞서 귀국한 도의를 통해 얻은 反面敎師의 교훈이었다.

주제어 : 新羅下代, 禪宗, 洪陟, 興德王, 南岳, 實相山門

I. 머리말

實相山門은 소위 9山禪門 중 가장 먼저 개창된 선종산문이다. 崔致遠은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에서 개창자인 洪陟을 道義와 함께 선종 初傳僧으로 높이 평가하였다.¹⁾ 또 <禪門祖師禮懺儀文>에도 實相山祖師로 洪陟國師가 수록되었다.²⁾ 그로 인해 실상산

-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鳳巖寺 智證大師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李智冠,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 新羅篇 -, 1993.
- 2) <禪門祖師禮懺儀文>은 선종의 조사를 배례하는 의식을 수록한 책으로 9산문의 조사와 함께 普照 知訥이 포함되어 있다. 찬자에 대해서는 “이

문을 9산문 중 앞머리에 언급하였고,³⁾ “홍척의 開山과 弘法은 9산문 중에 제일 먼저였다”,⁴⁾ “홍척은 禪宗九山派 중 최초의 開創者”,⁵⁾ “9산문 중 가장 먼저 선문을 형성했다”⁶⁾고 하였다.

실상산문과 홍척에 대해서는 그간 상당한 관심이 있어왔다. 9산문을 정리면서 실상산문을 주목하거나,⁷⁾ 홍척과 도의의 선사상을 비교하였다.⁸⁾ 후백제 甄萱과 실상산문의 관계를 고찰하기도 했다.⁹⁾ 최근

규모와 보조를 염두에 둘 수 있으나, 핵심이나 충지가 그들의 사승인 지를 늘 추가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許興植, <禪宗九山門과 禪門祖師禮懺文의 問題點> 《歷史教育論集》 5, 1983 :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160쪽).

- 3)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516~517쪽.
- 4) 權相老,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論文集》, 1959, 269쪽.
- 5)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 《韓國史研究》 7, 1972, 96쪽.
- 6)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 20, 1990, 10쪽 ; 金煥泰, <九山禪門의 成立과 그 性格에 대하여> 《普照思想》 9, 1995, 82쪽.
- 7)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金두진, <불교의 변화> 《한국사》 11, 1996a ; 金壽泰·曹凡煥, 《全羅道 地域 禪宗山門과 張保臯》,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5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曹溪宗史》 - 고종세편 -, 조계종출판사, 2004 ;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의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
- 8) 金두진, 《신라시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李啓杓, <新羅 下代의 迦智山門> 《全南史學》 7, 1993 ;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 9)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 ; 金壽泰, <甄萱政權과 佛教> 《후백제와 건원》, 百濟研究所, 2000 ; 조범환, <후백제 건원정권과 선종>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에는 조범환이 홍척의 실상산문 개창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¹⁰⁾ 홍척의 제자인 秀澈(815~893)화상에 대해서는 그의 비문을 역주·재구성하였고, 찬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¹¹⁾ 최근에는 <수철비>가 天祐 2년(905)에 건립되었다는 성과도 발표되었다.¹²⁾

아울러 수철의 생애도 정리되었다.¹³⁾ 片雲(?~910)화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金包光이 부도의 正開연호가 후백제의 것임을 밝혔고,¹⁴⁾ 편운과 후백제와의 관계가 주목되었다.¹⁵⁾ 그 외에 실상사 인근의 百丈庵 석탑의 밀교적 성격에 대해 주목기도 하였다.¹⁶⁾ 이상의 연구를 통해 실상산문의 개창과 전개과정, 홍척, 수철, 편운 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그렇지만 홍척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홍척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지증비>¹⁷⁾·<수철비>¹⁸⁾·《片雲和尚浮屠》¹⁹⁾·《祖堂集》 卷17·《景德傳燈錄》 卷11 등에서 간략

10) 조범환, <新羅 下代 洪陟禪師의 實相山門의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11) 鄭炳三,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장간호, 1991 ;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研究》 10, 1998 : 《孤雲思想의 脈》, 심산출판사, 2008.

12) 정선종,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2009.

13) 정동락,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14)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1928 ; 金映遂, 앞의 논문, 1938.

15) 裴宰勳, <片雲和尚浮屠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009.

16) 許亨旭, <實相寺 百丈庵석탑의 五方神像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 19, 2005.

17) 南東信, 앞의 책, 1992 ; 李智冠, 앞의 책, 1993.

18) 鄭炳三, 앞의 역주, 1992 ;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 정선종, 앞의 논문, 2009.

하게 전하고 있다. 최근 <수철비>의 비문과 음기가 새로 판독되었고, 玄晷의 행적을 통해 홍척의 생애를 보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왕의 성과와 자료들을 토대로 홍척의 생애와 활동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의 입당유학과 귀국, 신라왕실의 지원으로 실상산문을 개창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또, 신라왕실의 남종선 수용 배경과 홍척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선종(남종선) 초전승인 도의와 홍척이 선종의 전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았다.²⁰⁾

II. 입당유학과 귀국

신라하대 선종사에서 도의와 홍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당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최치원의 불교인식에서도 잘 드러

19) 金包光, 앞의 논문, 1928 ; 裊宰勳, 앞의 논문, 2009.

20) 도의, 홍척 등에 의해 남종선이 전래되어 신라하대 사회에 수용되면서 선종이 크게 융성하였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전래와 수용 등의 용어 사용에는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의 불교 도입 과정을 전래-수용-공인-국교화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전래’는 그야말로 불교가 들어왔다는 의미, ‘수용’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 ‘공인’은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 ‘국교화’는 불교통제기관으로서 승관제도가 확립된 것 등으로 구분된다고 한다(최광식,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2006 ;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 출판부, 2007). 신라하대 선종의 경우 전래와 수용, 공인 등의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의·홍척 등이 귀국하는 시기를 전래와 수용으로 볼 수 있고, 830년경 홍척왕에 의해 남종선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을 공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종의 전래와 수용’으로 파악하였다.

난다. 최치원은 893년(진성여왕 7)경에 찬술한 <도헌비>에서 당시의 입당구법 禪僧을 정리하면서 도의와 함께 홍척을 선종 초전승으로 평가하였다.

- A. 長慶초(821)에 道義師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西堂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의 광명을 서당 智藏에게 배워서 돌아왔으니, 처음으로 玄契를 말한 사람이다. … 東海의 東쪽 즉 경주에 머물 생각을 버리고 마침내 北山의 北에 은둔하였다. … 興德大王이 즉위함에 (826) … 이즈음 洪陟大師가 서당 지장으로부터 심인을 증득하고, 신라에 돌아와서 南岳에서 머물고 있었다. … 이후 바다를 건너는 구도승들의 뱃길 왕래가 이어지고 방편이 도에 융합하였으니 그 조상을 생각하지 않으랴. 진실로 문도들이 번창하였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입적하고 혹은 심인을 얻어 舍浦(본국)로 귀국하였으니 큰 스님(巨擘)이 된 분을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다. 중국에서 입적한 인물(西化)로는 靜衆寺의 無相, 常山寺의 慧覺, 益州의 金화상, 鎮州의 金스님이다. 고국에 돌아온 인물(東歸)로는 앞에서 말한 北山의 道義와 南岳의 洪陟, 그리고 시대를 조금 내려와서는(而降夫) 大安寺의 慧徹국사와 慧目山의 玄昱, 智力聞, 雙鷄寺의 慧昭, 新興彦, 涌巖體, 珍丘休, 雙峰寺의 道允, 崛山寺의 梵日, 兩朝國師인 聖住寺의 無染 등이다(<도헌비>).²¹⁾

사료 A에서 최치원은 長慶초(821)에 도의가 처음으로 선종을 전해왔으나 北山으로 은거하였고,²²⁾ 홍척은 흥덕왕 즉위 즈음에 귀국하여 남악에 머물자 왕실에서 귀의하여 선종이 갑자기 흥성하였다고 한다. 이후 西學 求法僧들의 발길이 이어져 문도들이 크게 번창했다고 한다. 특히, 최치원은 “北山의 道義”, “南岳의 洪陟”을 가장 앞머리에 기록하고, 그 뒤에 10여 명이 넘는 禪門 개창조들을 열거하였다. 홍척은

21) 南東信, 앞의 역주, 1992 ; 李智冠, 앞의 역주, 1993.

22) 최근 조범환은 도의가 흥덕왕의 배려로 진진사에 주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曹凡煥,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228~229쪽).

신라하대 지식인층 사이에서 도의에 버금가는 선종 초전승으로 널리 인정되었던 것이다.

홍척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생몰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홍척의 제자인 秀澈화상의 비문과 圓鑑 玄昱(787~868)이 837년(희강왕 2)부터 840년(문성왕 2)까지 實相寺에 머물다가 慧目山으로 떠난²³⁾ 저간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홍척의 몰년은 대략 840년 즈음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²⁴⁾ 만약, 홍척의 몰년이 840년경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그의 생몰년을 억지로라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선승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73세 정도로 나타난다.²⁵⁾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홍척은 77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840년경에 입적한 것으로 정리된다. 도의의 생몰년이 760년대 초반에서 830년 전후로 추정되므로,²⁶⁾ 홍척은 도의보다 10년 정도 연하였던 셈이다.

홍척의 신분이나 출생지도 관련 자료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道義(王氏, 北漢郡)나 慧昭(崔氏, 全州 金馬人), 慧徹(朴氏, 朔州 善谷縣), 道允(朴氏, 漢州 鵝岩人) 등의 경우로 보아 진골귀족 출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²⁷⁾ 또, 당시 선승들의 대체적인 출가 연령이 15세 전후이고, 수계는 2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²⁸⁾ 780년대 중반에 출가하여 790년대 초반에 수계했을 법하다. 대

23) 김용선, <玄昱·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113쪽.

24)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昱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19쪽;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99쪽.

25) 김방룡, <後百濟와 中國과의 佛敎交流>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문화사업회, 2004, 184~185쪽 <표 2>.

26) 정동락, <元寂 道義의 生涯와 禪思想>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23쪽.

27)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121~124쪽.

28)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323~326쪽; 崔源植,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民族社, 1999, 275~282쪽.

체로 불교적인 가정 분위기와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홍척은 아마도 화엄종 사찰로 출가하여 화엄을 익혔을 것으로 생각되며,²⁹⁾ 官立戒壇(官壇)사원에서 수계했을 듯하다. 당시 계단사원으로는 755년(경덕왕 14)에 창건된 華嚴寺가 있으며, 이곳에서 遍微(882)·慶甫(886) 등이 수계하였다.³⁰⁾ 마침 홍척은 귀국 후 남악 실상사에 머물렀으므로, 남악에 위치한 화엄사에서 출가 혹은 수계했을 법하다.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의 도의와 혜소는 중국의 寶壇寺나 少林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따라서 홍척도 중국에서 수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홍척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김영수(金包光)와 권상로는 신라 헌덕왕 때 입당하였다고 한다.³¹⁾ 헌덕왕 때라면 809~825년 사이지만 자세한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홍척의 입당은 법을 이은 西堂 智藏(735~814)³²⁾의 물년을 고려할 때 814년 이전임은 분명하다.³³⁾ 지장은 馬祖 道一(709~788)의 제자이므로, 홍척은 도일이 입적한 이후에 지장을 찾았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홍척은 대체로 790년대 이후 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입당했던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

중국으로 향하는 배편은 入朝使나 賀正使 등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도의는 韓粲 金讓恭의 도움을 받았고, 慧昭(774~850)도 賀正使를 태운 歲貢船의 뱃사공이 되어 입당하였다.³⁴⁾ 입당

29) 曹凡煥, 앞의 책, 2008, 33쪽.

30) 韓基次, <新羅末·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 12, 1988, 51~52쪽; 崔源植, 앞의 책, 1999, 273~275쪽.

31) 金映遂 編, 《實相寺誌》, 1920(黃壽永,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 108, 1970, 19쪽); 金包光, 앞의 논문, 1928, 33쪽; 權相老, 앞의 논문, 1959, 269쪽.

32) 《祖堂集》 권17, <東國實相和尚>.

33) 曹凡煥, 앞의 책, 2008, 33쪽.

동기는 선종의 수학을 위해서라고 보기도 하지만,³⁵⁾ 그 보다는 화업을 익히려고 했던 듯하다. 중국 내의 목적지도 당시 신라인들에게 불교 성지로 인식되던 五臺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⁶⁾ 그렇다면 홍척은 화업을 익히고 중국 불교를 접하기 위한 학문적인 목적과 승려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입당한 듯하다.

입당 이후 홍척은 일정 기간 동안 長安 등 帝都에 머물면서 중국 불교계의 흐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후 오대산 등을 찾았을 것이며, 그 과정에 당시 중국에서 풍미하던 南宗禪을 접했을 법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화업에서 선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한다.³⁷⁾ 홍척은 마조의 제자인 지장을 찾아가 그 법을 이었다. 지장은 마조 입적 후 791년부터 虔州 公龔山 寶華寺에 西堂을 세우고 입적할 때까지 주석하였다.³⁸⁾ 그는 마조의 정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승으로, “경전은 智藏에게로 들어가고, 선은 懷海에게로 돌아갔다.(經入藏 禪歸海)”³⁹⁾고 한다. 지장은 선승이면서 교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홍척이나 도의가 지장을 찾은 것은 그가 마조의 수제자라는 점과 함께 경전을 중시한 禪風 때문인 듯하다.

지장의 문하에는 도의, 홍척, 慧徹 등 신라 선승들이 수학하였다.

34) 金福順, <眞鑑禪師(774~850)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韓國民族文化》 15, 2000, 5쪽; 韓基汶, <新羅 下代 眞鑑禪師의 活動과 梵唄 敎化의 意義> 《大丘史學》 89, 2007, 105쪽.

35) 김복순,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중국 유학과 활동 배경> 《역사와 현실》 56, 2005, 29쪽.

36) 曹凡煥, 앞의 책, 2008, 33쪽; 차차석, <도의국사의 구법과 중국 선불교>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70쪽.

37) 도의는 입당 이후 장안에 체류하면서 帝都불교에 익숙해 진 후 오대산을 참배했고 그 과정에 선종으로 개종을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차차석, 앞의 논문, 2010, 60~70쪽).

38) 曹凡煥, 앞의 책, 2008, 34쪽.

39) 《景德傳燈錄》 권6, <百丈禪師>.

도의는 790년 초반 즈음에 지장의 문하에 들어와서 법을 잇고 회해를 참문하였다. 그리고 810년경 혜소와 함께 두타행을 하다가 귀국하였다.⁴⁰⁾ 혜철은 814년(헌덕왕 6)에 입당하여 지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⁴¹⁾

홍척은 지장의 입적 후 12년 정도 중국에서 머물다가⁴²⁾ 홍덕왕 즉위 즈음에 귀국하였다. 아마, 자신이 익힌 선종을 전하기 위해 귀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척은 신라의 사신과 귀국한 기록이 없으므로 商船, 즉 張保臯 선단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한다.⁴³⁾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27년(홍덕왕 2) 정월에 당나라 文宗은 헌덕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조회를 폐하고 太子左諭德 겸 御史中丞 源寂에게 명하여 조문·제사하고, 홍덕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⁴⁴⁾ 이해보아 홍덕왕은 즉위 직후(826년 10월) 당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렇다면 홍척은 신라 사신의 배를 이용해 귀국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중국의 사절인 源寂 등과 동

40) 정동락, 앞의 논문, 2003, 15쪽 ; 조영록, <道義의 在唐 求法行程에 관한 연구 - 《祖堂集》 관련기사의 비판적 검토 -> 《한국불교학》 57, 2010, 171~172쪽.

41) 曹凡煥, 앞의 책, 2008, 60쪽.

42) 曹凡煥, 앞의 책, 2008, 35쪽.

43) 曹凡煥,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2, 2002, 107쪽 ; 金壽泰·曹凡煥, 앞의 책, 2005, 47~48쪽 ;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南宗禪과 新羅社會 - 張保臯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 《대외문물교류》 7, 2007, 169쪽.

44) 《三國史記》 권10, 홍덕왕 2년 봄 정월조.

45) 헌덕왕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826년 10월 혹은 4월로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헌덕왕이 돌아간 이후 金秀宗이 대자의 세력을 축출하고 홍덕왕으로 즉위하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전왕의 죽음과 신왕의 즉위를 곧바로 당에 알릴 수 없었던 모종의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48~49쪽).

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홍척의 귀국 시기는 826년 말에서 827년 정월 사이였다고 하겠다.⁴⁶⁾

홍척은 귀국 후 남악에 머물렀다고 하므로, 會津을 통해 입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홍척보다 10여 년 후에 귀국한 玄晷의 사례가 참고 된다. 현욱은 宿衛王子 金義琮이 전한 왕명을 받고 837년(희강왕 2) 9월에 귀국하였다. 그는 武州 회진을 통해 입국하여 남악 실상사에 머물렀다.⁴⁷⁾ 회진은 나주의 영산강 하구에 있던 항구로 신라 건당사와 서학 구법승들이 많이 활용하였다. 會津路는 왕경(경주) - 달구벌(대구) - 대야(합천) - 남원 - 무주(광주) - 회진(나주)으로 연결되는 官道로 왕래가 빈번하였다.⁴⁸⁾

한편, 현욱의 사례로 보아 당시 신라에서는 중국에 유학한 선승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또 입조사나 숙위학생 등을 통해 신라로 귀국하라는 왕명을 전하기도 했다. 아마 홍척에 대해서도 왕실에서는 그가 지장의 법을 이었다든가 중국에서 두타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홍척도 신라왕실의 명령에 따라 귀국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46) 권덕영은 827년에 源寂과 金允夫(숙위학생)를 각각 大使와 副使로 삼아 신라에 보내 홍척왕을 책봉했다고 한다(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2005, 106쪽). 김윤부가 826년 12월에 告使를 따라 신라로 오게 되었다는 기사(《冊府元龜》 권999, 靑丘조)와 《삼국사기》 홍척왕 2년 정월조 등을 통해 볼 때 원적과 김윤부 일행은 826년 말에서 827년 정월 사이에 신라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47) 《祖堂集》 권17, <東國慧目山和尚>.

48) 權惠永,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4~7쪽.

Ⅲ. 남악에서의 실상산문 개창

신라로 귀국한 홍척은 경주로 가지 않고 南岳에 머물렀다. 홍척이 남악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력한 화엄종 사찰들이 있어 화엄이 성하였고, 北宗禪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북종선을 기반으로 선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왕실에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⁹⁾ 그리고 도의가 설악산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홍척은 지리산을 택했다고도 한다.⁵⁰⁾

남악이 위치한 남원지역은 회진을 통해 왕경으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홍척은 귀국 후 곧바로 남악에 머물렀을 것이다. 당시는 헌덕왕이 사망하고 흥덕왕이 즉위한 시기였다. 따라서 홍척이 왕실을 찾아 흥덕왕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홍척이 남악을 선택했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연고지가 남악 부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⁵¹⁾

821년 귀국한 도의는 선종을 전하기 위해 왕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마치 達摩가 梁 武帝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하지 못한 것과 같아 은거했다”고 한다.⁵²⁾ 즉, 도의는 귀국 직후 헌덕왕을 만났지만, 헌덕왕은 도의에게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⁵³⁾ 그에 반해

49) 曹凡煥, 앞의 책, 2008, 36~37쪽.

5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앞의 책, 2003, 118쪽.

51) 조범환은 대체로 선사들은 귀국 후 연고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홍척도 남악보다는 연고지에 먼저 들렀을 것이라고 하였다(曹凡煥, 앞의 책, 2008, 35~36쪽, 주 10).

52) 李智冠,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앞의 책, 1993.

53) 이영호는 “도의가 내심 경주에서 선종을 일으켜 전법활동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이영호, <신라 迦智山門의 法統과 位相 인식> <<新羅文化>>

홍척은 남악에 머물면서 선종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척이 남악에 주석하던 당시의 사정을 <도헌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B. 興德大王이 즉위함에 宣康太子 忠恭이 監撫가 되어 邪를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였으며, 善을 좋아하여 나라가 살찼다. 이즈음 洪陟大師가 西堂 智藏으로부터 심인을 증득하고, 신라에 돌아와서 南岳에서 머물고 있었다. 임금이 道를 묻는 法文을 청하였고(陳順風之請), 대궐에서는 그가 온 것을 경하하였다(慶開霧之期). 아침의 凡夫가 저녁에 聖人이 되게 하였으니 변함에 차제가 있지 않았으며, 홍함이 (결략) 갑작스러웠다(<도헌비>).⁵⁴⁾

홍척이 귀국하여 머물렀던 남악은 실상사였을 것이다. 다만, 사료 B의 내용만으로는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던 실상사에 주석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실상사의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한기문은 홍척이 826년경 실상사에 머물렀으므로 이때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⁵⁵⁾ 반면, 김영수·권상로·최병헌·고익진 등은 828년(홍덕왕 3)에 실상사를 창건했다고 하였다.⁵⁶⁾ 조범환은 수철화상이 829년 무렵에 실상사에서 홍척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고 이때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실상사를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북종선 사찰을 홍척이 머물면서 남종선으로 바꾸었을 것이라고 한다.⁵⁷⁾ 추만호는 홍척이 830

32, 2008, 286~287쪽).

54) 李智冠, 앞의 책, 1993.

55)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263쪽 및 292쪽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앞의 책, 2003, 118쪽.

56) 金映遂 編, 앞의 책, 1920(黃壽永, 앞의 논문, 1970, 18쪽) ; 權相老, 앞의 논문, 1959, 269쪽 ; 高翊晉, 앞의 책, 1989, 490쪽 ; 崔柄憲, 앞의 논문, 1972, 96쪽 ; 崔柄憲, <禪宗九山の 成立과 下代佛敎> 《한국사》 3, 1978, 554쪽.

년(흥덕왕 5) 무렵 지리산에서 실상산문을 열고 흥덕왕과 宣康太자의 초청으로 경주에 갔다고 한다.⁵⁸⁾ 요컨대, 실상사의 창건은 826년, 828년, 829년, 830년경으로 약간씩 달리 파악되고 있다. 흥척은 흥덕왕 즉위 즈음에 회진으로 귀국하여 남악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826년경에 남악에 주석했을 것이며, 실상사는 이미 창건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실상사는 북종선 계통의 사원이었을까.⁵⁹⁾ 남악의 斷俗寺는 神行(704~779)이 머물다가 입적하였고, 813년(헌덕왕 5)에 <신행선 사비>가 건립되었다. 따라서 단속사는 경덕왕 때부터 북선종 사원이었고, 헌덕왕 때에 공인된 것으로 보인다.⁶⁰⁾ 그렇지만 단속사 이외의 북종선 사원은 흥척이 귀국하던 무렵에는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다. 또, 당시는 북종선이 그렇게 널리 확산된 것 같지도 않다. <도헌비>에서 최치원은 신행을 언급했지만, 선종의 초전승으로 도의와 흥척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상사는 화엄종 사원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시기 사원이 교종에서 선종으로 전환되는 예는 많이 찾아진다. 體澄의 迦智山寺는 元表의 화엄종, 大通이 머문 月光寺는 道證의 법상종 사원이 선종으로 바뀐 사례들이다.⁶¹⁾

다음으로 흥척이 주석할 당시 실상사의 단월은 누구였을까. 이에 대해 진골 가운데 남원소경으로 낙향하여 성장한 부류들로, 이들은 북종선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종선이 들어오자 관심을 가졌다

57) 曹凡煥, 앞의 책, 2008, 37~38쪽.

58)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297쪽.

59) 曹凡煥, 앞의 책, 2008, 37~38쪽.

60) 鄭善如, <新羅 中代末·下代初 北宗禪의 受容 - <丹城斷俗寺神行禪師碑文>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12, 1997, 300쪽;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262쪽.

61)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263~265쪽.

고 한다.⁶²⁾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의가 귀국 하였을 때 보여준 헌덕왕과 불교계의 거부감과 달리, 남원지역의 단월들이 유독 홍척을 쉽게 지원했던 이유는 잘 설명 되지는 않는다. 헌덕왕은 북종선의 승려인 <신행선사비>를 건립했음에도 도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홍척의 연고지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혹여 그의 연고지가 남악 인근이었다면 쉽게 실상사에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홍척이 원적과 김윤부 등 사신 일행과 함께 귀국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척이 실상사에서 머무는 것을 지원한 인물로 김윤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를 매개로 남원에 파견된 지방관(仕臣)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³⁾ 그렇다면 실상사의 홍척을 지원한 단월로는 그와 연고가 있던 지방세력이나 남원에 파견된 지방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溟州 출신인 梵日은 연고지의 지방관인 명주도독 金公의 초빙으로 嶺山寺에 주석했던 사례가 참고된다.⁶⁴⁾

한편 홍척이 왕실을 방문하여 홍덕왕과 대면한 시기는 언제쯤일까. 대체로 830년경에 신라왕실과 연결되었다고 한다.⁶⁵⁾ 이는 혜소에 대한 홍덕왕의 귀의 시기와 맞물린다.

62) 曹凡煥, 앞의 책, 2008, 38~39쪽.

63) 김윤부는 825년 5월 金昕 등과 함께 입당 숙위하면서 국자감에서 수학하다가, 827년 1월 冊封使 원적의 부사로 홍척과 함께 귀국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홍덕왕은 김윤부를 통해 홍척이 실상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관심을 가졌을 법하다. 김윤부에 대해서는 鄭求福 등, 《譯註三國史記》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325쪽 참조.

64) 鄭東樂, <通曉 梵日(810~889)의 生涯에 대한 再檢討> 《民族文化論叢》 24, 2001, 77쪽.

65)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297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60쪽 ; 曹凡煥, 앞의 책, 2008, 39쪽.

- C. 太和 4년(830)에 귀국하여 … 흥덕대왕이 편지를 보내 환영하고 위로 하며 “道義禪師가 전날에 이미 돌아왔고, 스님(上人)께서 이어 돌아오 시니 두 보살이 되었도다. … 내가 장차 동쪽 계림 땅에 靈妙한 吉祥의 집을 이루리라”고 하였다. 비로소 尙州 露巖山 長栢寺에 주석케 하였다(<혜소비>).⁶⁶⁾

흥덕왕은 830년 혜소가 귀국하자 편지를 보내 환영하고 도의와 함께 보살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상주 노악산 장백사에 주석케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흥척과 흥덕왕·선강태자가 만난 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수철(815~893)의 비문이다. <수철비>는 결락이 심하고 구성과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때문에 추만호·정병삼 등은 비문을 역주하면서 문장을 재구성하였다.⁶⁷⁾ 이에 대해 정선종은 현존하는 <수철비>는 처음 건립할 당시(905년)의 것으로 비문의 재구성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⁶⁸⁾ 여기서 현존하는 비문을 토대로 흥척과 흥덕왕의 만남과 입적 시기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D. 志學(15세, 829)에 佛法에 뜻을 두어 緣虛律師에게서 출가하고 天宗 大德에게 경전을 배웠다. … 이때 證覺□師께서 (왕의) 부름에 응하여 都邑에 거동하니 절하고 하례하였다. 자신이 원하던 바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칭하니 허락하였다. 이에 [흥척국사가]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묻자, [수철화상은] “스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미 신묘한 경지에 깃들었으므로 (결락) 仙境을 찾

66) 李智冠, <河東 雙溪寺 眞鑑禪師 大空靈塔碑文> 앞의 책, 1993.

67) 鄭炳三, 앞의 역주, 1992 ;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68) 정선종, 앞의 논문, 2009, 176~177쪽, 189쪽. 특히 정선종은 “<수철비>의 1714년 증건은 넘어진 옛 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고 이 때 비신 하단의 양측이 훼손되어 세울 수 없게 되자, 비신의 하단을 잘라낸 것”이라고 한다. 비문 음기의 판독과 현재 전하는 <수철비>의 해체 복원 자료를 토대로 한 주장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왔다가 雪岳을 떠나(□□仙境 □離雪岳) 홀로 雲峯으로 발을 옮겨 실상사(實相禪庭)에 이르렀다. 國師가 이르기를 “도가 동쪽으로 온 것은 오랜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西堂의 가풍을 잘 짓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다. … 얼마 있다가(三略句) [835년, 흥덕왕 10] 東原京(溟州) 福泉寺에 이르러 潤法大德에게서 具足戒를 수계하였다. … 마침내 다시 곧바로 되돌아 와서 智異山 知實寺를 私築하고(遂□復直往 私築于智異山 知實寺)⁶⁹⁾ 여러 章疏를 남김 없이 보시니 … (<수철비>)⁷⁰⁾

사료 D를 통해 수철이 829년(흥덕왕 4)에 출가하고, 법랍이 58세이므로 구족계를 받은 연도가 835년(흥덕왕 10)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철은 출가(829) 이후 왕경을 방문한 홍척을 만나 제자가 되었다. 즉, “證覺□師께서 (왕의) 부름에 응하여 都邑에 거동하니, 절하고 하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척은 829년 이후 흥덕왕의 초빙으로 왕경에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수철은 잠시 雪岳으로 갔다가 實相禪庭으로 와서 홍척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835년 溟州 福泉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로 보아 홍척이 경주를 방문한 시기는 829년에서⁷¹⁾ 835년 사이가 된다. 그 사이 수철의 행적과 <혜소비>를 고려한다면, 홍척이 궁궐을 찾은 것은 아무래도 830년경(흥덕왕 5)이 아닌가 한다. 즉, 홍척은 830년 흥덕왕의 초청으로 도읍에 거동하여 법문을 설하고, 수철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수철비>에는 홍척을 ‘증각□사’ 혹은 ‘國師’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홍척이 국사로 책봉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아마 830년 홍척이 왕실을 방문했을 때 흥덕왕이 국사로 책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⁷²⁾ 《景德傳燈錄》에서 흥덕왕과 선강태자를 홍척의 제자

69) 정선종은 “遂□□□□□”로 판독하였으나, 여기서는 추만호·정병삼의 판독문을 인용하였다.

70) 정선종, 앞의 논문, 2009, 175쪽.

71) 정선종은 그 시기를 829년 이후라고 한다(정선종, 앞의 논문, 2009, 177쪽).

로 기록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三國史記》에는 “830년(홍덕왕 5) 4월 홍덕왕이 병이 났으므로 기도를 드리고 150명의 승려를 度僧했다”는 기사가 전한다. 혹시 홍척은 830년 4월 즈음에 왕실을 방문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홍척은 830년 홍덕왕의 초빙을 받고 왕실에서 法文을 설하고 국사로 책봉되었다. 이때 홍척은 홍덕왕에게 자신이 전해온 선종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을 것이다. 홍덕왕은 홍척이 전한 남종선에 공감하여 선종을 수용하였고, 자신이 추구한 개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듯하다. 이렇게 하여 실상산문은 왕실의 공인과 지원으로 개창되었다. 선종이 신라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국왕의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했던 것이다.⁷³⁾

경주에서 얼마간 머물던 홍척은 다시 실상사로 되돌아왔다. 반면, 수철은 홍척과 동행하지 않고 설악에 들렀던 것으로 보인다. 설악은 陳田寺 혹은 億聖寺였을 가능성이 높다. 홍척은 수철에게 사형 뺀 인도의를 찾아가 보라고 소개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수철이 설악을 찾았을 때 도의는 이미 열반하였거나 연로하여 지도할 수 없었다.⁷⁴⁾ 이에 수철은 홍척을 찾아 남악의 실상사로 향하였던 듯하다. 홍척은 수철이 실상사로 돌아오자 지장의 가풍을 잘 전하라고 하고 인가해 주었다. 이후 홍척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玄奘(787~868)의 행적을 통해 그를 보완할 수 있다.

E. 本國王子 金義琮이 전하는 왕명에 따라 東(신라)으로 돌아왔다. 開成

72) 남동신은 세속의 군주가 선승에게 절하고 국사로 우대된 것은 홍덕왕대의 홍척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94쪽).

73)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261쪽.

74)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96쪽.

2년(837) 9월 12일 본국의 武州 會津에 이르러 南岳 實相寺에 머물렀다. 민애왕·신무왕·문성왕·헌안왕이 잇달아 제자의 예를 다하여 공경하면서 신하의 예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대양 왕궁에 들어오면 반드시 자리를 껴게 하여 說法을 들었다. 開成 말년(840)에 慧目山 기슭에 암자를 만들었으며, 경문왕이 高達寺에 주석하도록 명하였다 (<현육전>).⁷⁵⁾

현육은 837년(희강왕 2) 9월 귀국하여 남악의 실상사에 머물렀다. 그 후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 등이 잇달아 제자의 예를 다하였고, 왕궁으로 초빙하여 설법을 들었다. 그러다가 開成 말년인 840년 경(문성왕 2)에 혜목산으로 떠났다. 따라서 헌안왕이 귀의한 것은 실상사가 아니라 혜목산에서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육은 837년 귀국했음에도 희강왕은 그와 결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희강왕이 왕위쟁탈전에서 승리하고 즉위해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⁷⁶⁾ 이를 수용한다면 민애왕에서 신무왕까지도 왕위쟁탈전이 벌어졌으므로 현육이 왕궁을 방문기 어려웠고, 문성왕 때가 되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한다. 그렇지만 민애왕에서 헌안왕 등의 왕들은 현육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였고 그를 국사로 삼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⁷⁷⁾ 따라서 민애왕과 신무왕 등은 실상사에 있던 현육에게 귀의하고, 왕실로 초빙했던 듯하다. 이는 838년 민애왕이 혜소를 왕실로 초빙하였으나 거절하자, 혜소라는 호를 내리고 승적을 大皇龍寺에 올려 주었던 것⁷⁸⁾에서도 짐작이 된다.

그런데 이 시기 현육이 실상사에 머물 때에는 흥척도 주석하고 있

75) 《祖堂集》 권17, <東國慧目和尚傳>.

76) 조범환, 앞의 논문, 2008, 17쪽.

77) 남동신은 현육이 국사로 예우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남동신, 앞의 논문, 2005, 94쪽).

78) 金福順, 앞의 논문, 2000, 11쪽.

었을 것이다.⁷⁹⁾ 즉 민애왕에서 문성왕에 이르는 왕위쟁탈전의 와중에도 신라왕실에서 ‘실상사의 현욱’에 귀의했다는 사실은 달리 생각하면, 이 왕들이 홍척을 염두에 두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다시 말해 이 왕들은 ‘실상사의 홍척’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오히려 현욱은 홍척을 통해 신라왕실과 연결되었을 법하다.⁸⁰⁾

그렇다면 현욱의 행적을 통해 흥덕왕대 이후 홍척과 신라왕실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흥덕왕이 836년 12월 후사가 없이 薨去하자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⁸¹⁾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라왕들은 계속 실상사와 홍척·현욱 등에게 귀의하였다. 이들 왕들이 실상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흥덕왕 때 입조사로 갔다가 현욱에게 왕명을 전한 金義琮의 존재가 주목된다. 그는 836년 정월에 입당하여 文宗을 숙위하다가, 837년(희강왕 2) 4월에 현욱과 함께 귀국길에 올라 9월에 무주 회진에 도착하였다.⁸²⁾ 또 《祖堂集》에는 그가 太和년간(827~835)에도 梵日과 함께 입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 840년(문성왕 2) 정월 侍

79) 홍척의 입적 시기에 대해서는 현욱이 실상사에 주석하기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이 글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도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뚜렷한 자료가 뒷받침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홍척이 생존해 있을 당시 현욱이 실상사에 머물렀고, 홍척의 존재를 통해 신라왕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80)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99쪽.

81)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65~168쪽;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172~182쪽 및 299~306쪽.

82) 김의중은 4월 11일에 중국에서 출발하여 9월 12일에 회진에 도착하였다(鄭求福 등, 앞의 책, 2001, 332쪽; 안주홍, <신라 하대 문성왕대의 정국> 《新羅史學報》 19, 2010, 97쪽).

中이 되었고, 843년 정월 병으로 시중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그의 행적은 사료상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김의종을 849년(문성왕 11) 상대 등이 된 義正과 동일인으로 파악하고, 金誼靖(祐靖)과 동음인 것으로 보아 뒤에 현안왕으로 즉위한 것으로 추정기도 한다.⁸³⁾ 반면, 김의종과 金義正·金誼靖은 서로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한다.⁸⁴⁾ 현재 김의종이 현안왕인지는 불분명하지만,⁸⁵⁾ 837년 귀국하여 840년에 시중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는 신무왕·문성왕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욱은 회진으로 귀국해 실상사에 머물렀으며, 이때 김의종도 동행하였다. 따라서 김의종은 현욱과 함께 실상사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김의종은 당시 실상사에 있던 흥척과도 연결되었을 법하다.

한편 회강왕과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해 죽임을 당한 김균정의 아들인 金祐徵은 837년(회강왕 2) 5월 淸海鎮의 張保皋에게 의탁하였다. 뒤이어 6월에는 禮徵과 良順, 838년(민애왕 1) 2월에는 金陽이 청해진의 김우징에게로 갔다. 이후 장보고·김우징의 군대는 838년 3월 武州를 점령하고 실상사가 위치한 南原小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일단 청해진으로 퇴각하였다. 다시 12월에 군사를 일으켜 武州 鐵冶縣에서 민애왕의 군대를 깨트렸다. 그리고 839년 정월 達丘伐(대구)에서 정부군을 격파하고 경주로 진격해 민애왕을 제거한 뒤 김우징(신무왕)이 즉위하고, 뒤이어 문성왕이 보위에 올랐다.

83) 李基東, 앞의 책, 1984, 170~171쪽 ; 안주홍, 앞의 논문, 2010, 97쪽.

84) 권영오, 《新羅 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191쪽 ; 姜在光, <文聖王代の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造成的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101~104쪽 주 10) 및 주 14).

85) 만약 김의종이 현안왕과 동일한 인물이라면, 《祖堂集》에서 현욱이 실상사에 머물 때 현안왕이 귀의했다는 기록은 곧 김의종이 실상사의 현욱에게 귀의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신무왕·문성왕의 즉위에는 청해진의 장보고 세력이 정치·군사적 기반이 되었다.⁸⁶⁾ 청해진은 828년(홍덕왕 3) 김우징이 시중으로 있을 때 설치되었다.⁸⁷⁾ 따라서 김우징과 장보고는 홍덕왕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⁸⁸⁾ 청해진이 설치되는 828년에는 실상사에 홍척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홍척과 청해진 세력은 이때부터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덕왕은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을 설치했으며, 830년에는 홍척에게 귀의하였다. 게다가 실상사는 장보고·김우징의 군대가 경주로 진격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었다.⁸⁹⁾ 특히 838년 3월에서 839년 정월 사이의 장보고 군대와 신라 정부군의 내전에서 남원소경과 실상사는 전략적 요충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실상사의 홍척과 현욱에게 민애왕에서 문성왕 등이 관심을 표명했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즉 민애왕 때에는 김우징과 그 세력들이 장보고에게 의탁하였고 홍척이 이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민애왕은 청해진과 실상사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⁹⁰⁾ 신무왕과 문성왕의 경우에는 홍척·

86) 金昌謙, 앞의 책, 2003, 180~182쪽 및 302~304쪽.

87) 《三國史記》 권10, 홍덕왕 3년 정월 및 4월조.

88) 김우징은 시중으로 재임 중 장보고의 청해진 사업에 대한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223쪽; 김창겸, <8~9세기 新羅 政治社會의 變化와 張保臯> 《대외문물교류》 창간호, 2002, 179쪽).

89) 권덕영, 앞의 논문, 1996, 7쪽.

90) 권영오는 김충공-김명(민애왕)가문은 청해진에 들어간 김우징을 의식하여 선승인 홍척과 혜소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지리산 일대에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였다고 한다(권영오, 앞의 책, 2011, 171~174쪽 및 178쪽). 하지만, 현욱과 함께 귀국하여 실상사에도 들렀던 김의종은 문성왕 때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보아, 홍척과 민애왕의 결연보다는 홍척과 신무왕·문성왕의 결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장보고 세력과 연고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귀의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홍척은 826년 귀국 무렵부터 신라왕실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830년경에는 직접 왕실을 방문하여 설법하고 홍덕왕의 국사가 되었다. 마침 홍덕왕은 828년에 장보고를 지원하여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로 보아 홍척은 828년 무렵부터는 장보고 세력과의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⁹¹⁾ 이후 회강왕·민애왕대에는 청해진에 의탁한 김우징과 연결되었으며, 신무왕의 즉위에도 협조적이었을 것이다. 민애왕 이후 문성왕까지의 신라왕실은 왕위쟁탈을 거쳐 즉위한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홍척과 선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다.⁹²⁾

마지막으로 홍척의 입적 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현욱은 840년 실상사를 떠나 해묵산으로 자리를 옮겼다.⁹³⁾ 그런데 수철화상도 이즈음에 “다시 곧바로 돌아와 智異山 知實寺를 私築했다”고 한다. 지실사는 실상사, 사축은 사역의 확장으로 파악되고 있다.⁹⁴⁾ 여기서 현욱과 수철의 행적이 서로 겹쳐진다. 즉, 수철이 실상사로 되돌아와 선문을 이끌자, 현욱은 해묵산으로 주석처를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91) 근등호일은 장보고가 신라왕실에 남종선의 선사를 소개하거나 수용을 청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콘도 고이치(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7, 169쪽).

92) 민애왕이 해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의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93) 김용신, 앞의 논문 2006, 113쪽.

94)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298쪽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앞의 책, 2004, 118쪽. <수철비>의 “私築于智異山知實寺”에 대한 해석을 “智異山에 私築하고 實寺의 일을 맡았다”로 풀이할 수도 있다고 한다(신라사학회 제 103회 학술발표회[2011. 4. 23] 토론에서의 지적).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수철이 지리산의 실(상)사를 사축하고 그 寺務를 맡았던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아무래도 홍척의 입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⁹⁵⁾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홍척은 840년 즈음에 입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척이 입적하자 문성왕은 시호를 證覺, 탑호를 凝蓼로 내렸던 듯하다.

IV. 홍덕왕의 남종선 수용과 홍척의 대응

홍척은 830년경 왕실을 방문하여 설법하고 홍덕왕의 지원으로 실상산문을 개창하였다. 이는 그보다 5년 정도 앞서 귀국했던 도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라하대 선종의 홍성은 홍척과 홍덕왕의 결연에서 단초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라왕실에서 남종선을 수용했던 이유와, 홍척이 신라왕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홍덕왕이 선종을 수용하는 상황은 <도헌비>에서 어느 정도 간취된다. 즉, “홍덕왕이 즉위함에 宣康太子(忠恭)이 監撫가 되어 邪를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였으며, 善을 좋아하여 국가가 살졌다.”고 하고, 남악에 있는 홍척을 초빙하여 법문을 듣고 선종(남종선)을 수용했다고 한다(사료 B). 특히 홍덕왕과 김충공이 “①去邪蠶國하고, ②樂善肥家”한 사실을 강조해 두었다. 金秀宗은 헌덕왕대에 上大等(819.2~822.1)과 副君(822.1~826.10)을 역임하였고, 826년 10월에 홍덕왕으로 즉위하였다. 김충공은 822년(헌덕왕 14) 1월에 상대등이 되고 홍덕왕 즉위 후에는 선강태자로 책봉되면서 왕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하였다. 특히, 이들은 헌덕왕 때인 822년 3월에 발발한 金憲昌의 난과 825년

95) 조범환은 홍척이 입적하고 수철이 실상사를 이끌게 되자 현욱의 입지가 좁아져 혜목산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조범환, 앞의 논문, 2008, 19쪽).

(헌덕왕 17) 정월 金梵文의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⁹⁶⁾

홍덕왕과 김충공이 “去邪罄國”한 것은 김헌창 난의 진압을, “樂善肥家”한 것은 홍덕왕이 추진한 개혁정치를 의미하는 듯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선종을 수용한 배경을 당시의 정치개혁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홍덕왕이 선종의 혁명적인 성격에 공감했다거나,⁹⁷⁾ 정치개혁에 禪을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것,⁹⁸⁾ 자신의 지위에 대한 사상적 뒷받침을 얻고자 했다고 한다.⁹⁹⁾ 또는 당시 대두되고 있던 金均貞·祐徵계에 대한 견제책,¹⁰⁰⁾ 김헌창·김범문의 난의 휴유증 치유,¹⁰¹⁾ 남원지역 유력자들과 홍척의 연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홍척이 개혁사상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⁰²⁾ 사상적으로는 화엄 사상과 밀교·선종과의 융회 합작을 꾀한 것,¹⁰³⁾ 교종에 대한 견제책 등으로 파악기도 하였다.¹⁰⁴⁾ 더불어 홍덕왕대의 정치개혁과 사상적 혼란의 극복,¹⁰⁵⁾ 지방사회에 가득한 반신라적 사상이나 분위기를 억누르고, 장보고가 남조선 선사를 소개했거나 수용을 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다.¹⁰⁶⁾ 요컨대 홍덕왕은 김헌창의 난 이후 남원지역

96) 《三國史記》 권10, 헌덕왕 14년 및 민애왕 즉위조 ; 李基東, 앞의 책, 1984, 162~163쪽 ; 金昌謙, 앞의 책, 2003, 111~113쪽 ; 曹凡煥, 앞의 논문, 2010, 49쪽.

97) 崔柄憲, 앞의 논문, 1972, 95쪽.

98) 高翊晉, 앞의 책, 1989, 528쪽.

99)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 - 특히 興德王 九年에 頒布된 諸規定의 政治의 背景에 대하여 - > 《韓國史研究》 39, 1982, 47쪽.

100) 李啓杓, 앞의 논문, 1993, 276쪽.

101) 韓基汶, 앞의 논문, 2007, 108~109쪽.

102) 曹凡煥, 앞의 책, 2008, 41~43쪽.

103)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179쪽.

104) 金楨權,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溪寺 創建> 《湖西史學》 27, 1999, 18쪽.

105) 정동락, 앞의 논문, 2003, 176~23쪽.

106)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7, 162~169쪽.

의 상황을 고려하고, 정치개혁과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홍척과 선종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흥덕왕의 남종선 수용 배경을 검토해 보자. 822년(헌덕왕 14) 3월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은 “신라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¹⁰⁷⁾고 할 만큼 반향이 컸다. 남원은 김헌창 난의 한가운데에 위치했으나, 사료 상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때문에 남원이 실제 난에 가담했다거나,¹⁰⁸⁾ 사료를 신빙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한다.¹⁰⁹⁾ 아마도 남원지역은 관망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김헌창 난의 진압을 주도했던 김수종(흥덕왕)과 김충공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남원 지역마저 가담했다면 난의 진압은 그만큼 더 어려웠을 것이다. 남원은 왕경에서 서남부지역을 통어할 수 있는 곳으로 대당 교통로의 요충지였다.¹¹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민심의 수습과 진무통제는 지방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이유로 홍척이 남악 실상사에 머물자 그에 대해 흥덕왕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흥덕왕은 일차적으로 남원지역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홍척을 주목했던 것이다.

흥덕왕은 즉위 후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왕권강화와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¹¹¹⁾ 828년(헌덕왕 3) 4월과 829년 2월에 청해

107) 朱甫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236쪽.

108) 황선영은 “남원을 金官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남원이 반란군 편에 섰음이 확실하다”고 하고, 조범환도 “완산주의 통제 아래 있던 남원지역도 난에 가담했다”고 한다(황선영, <신라하대 金憲昌 亂의 성격>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49쪽 주 17); 조범환, 앞의 책, 2008, 40쪽).

109) 朱甫暉, 앞의 논문, 2008, 254쪽.

110) 韓基汶, 앞의 논문, 2007, 109쪽.

진과 唐城鎮을 설치하였고, 828년에는 執事部를 執事省으로 개칭하였다. 뒤 이어 834년(흥덕왕 9)에는 소위 풍속관계 규정이라 불리는 개혁조서를 반포하였다. 이는 사치풍조를 배격 단속함으로써 헤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였다.¹¹²⁾ 개혁조서에는 上下尊卑의 신분질서를 바로잡고, 사치풍조를 일대 혁신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김헌창 난이 일어나기 직전 綠眞이 金忠恭에게 건의한 ‘職에 맞는 인재의 등용과 올바른 인사 정책의 운용을 통한 王政의 실현’¹¹³⁾과 일련선상에 있다. 흥척이 흥덕왕과 선강태자에게 설법한 지 4년 후에 개혁조서가 반포되었다. 830년 흥척이 흥덕왕에게 설한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王政의 실현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법하다.

한편, 흥덕왕은 선종을 통해 불교계의 개혁을 추구했다. 불교계의 개혁조치는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바였다. 806년(애장왕 7) 애장왕은 사원의 新創을 금지하고 수리만을 허용하고, 佛事に 수놓은 비단이나 금은으로 만든 그릇의 사용을 금지하였다.¹¹⁴⁾ 아울러 애장왕에서 헌덕왕대에 이르기까지 元曉·阿道·異次頓 등에 대한 일련을 추모사업을 추진하였다.¹¹⁵⁾ 또, 813년(헌덕왕 5)에는 남악 단속사에 <신행선사비>를 건립키도 하였다.¹¹⁶⁾ 이는 기존의 불교계를 유지하면서 현상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¹¹⁷⁾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연이

111) 金東洙, 앞의 논문, 1982, 45쪽 ; 李基東, 앞의 책, 1984, 161쪽 ; 李基東, 앞의 책, 1997, 162~173쪽.

112) 李基東, 앞의 책, 1997, 174쪽.

113) 《三國史記》 권45, <綠眞傳>.

114) 《三國史記》 권10, 애장왕 7년 3월.

115) 郭丞勳, 《統一新羅時代의 政治와 佛敎》, 國學資料院, 2002, 169~176쪽.

116) 鄭善如, 앞의 논문, 1997, 262쪽.

117) 정동락, 앞의 논문, 2003, 26쪽.

은 자연 재해와 유민과 도적의 발생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듯하다. 그 때문에 左道가 대두하는 등 사상적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특히 828년(흥덕왕 3) 速富之術을 내세운 妖人의 등장은 흥덕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불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 F. 흥덕왕 3년(828) 봄 4월 漢山州 瓢川縣의 妖人이 자칭 速富之術을 가졌다하여 衆人을 자못 迷惑시켰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左道를 가지고 衆人을 惑하게 하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先王의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遠島로 귀양을 보냈다.¹¹⁸⁾

흥척이 흥덕왕을 만나기 2년 전 한산주의 瓢川縣에서는 자칭 속부지술을 가진 요인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이에 흥덕왕은 좌도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를 벌하는 것은 先王의 법이라고 하면서 요인을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처럼 흥덕왕이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좌도의 발생이 한산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速富之術’은 종교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秘術로, ‘妖人’을 지도자로 하고 상당수의 하층농민들을 신도로 하는 종교집단이며, 농민들의 반신라적 성향을 조장 증폭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¹¹⁹⁾ 이 때문에 흥덕왕은 그에 대한 대응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당시 중국에서 귀국한 흥척과 혜소 등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종(南宗禪)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¹²⁰⁾ 즉, 도의가 귀국하는 헌덕왕대에는 기존의 불교계를 유지하면서 현상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불교정책을 추진하였다면, 흥척이 귀국하는

118) 《三國史記》 권10, 흥덕왕 3년 하4월.

119)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243~246쪽.

120) 근등호일도 828년 妖人사건 이후 신라왕실은 南宗禪을 받아들여 지방 사회에 가득한 速富之術과 같은 반신라적 사상이나 분위기를 억누르고자 했다고 한다(큰도 고이치(近藤浩一), 앞의 논문, 2007, 167~168쪽).

홍덕왕대가 되면 남종선을 수용하면서 불교계를 전면적으로 개혁코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의와 홍척이 서로 상반된 길을 걸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홍척이 홍덕왕을 비롯한 신라왕실과 결연한 배경은 무엇일까? 홍덕왕대 선종의 갑작스러운 흥성에 대해 <도헌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G. 아침의 凡夫가 저녁에 聖人이 되게 하였으니 변함에 차체가 있지 않았으며(朝凡暮聖 變非蔚也), 흥함이 (결락) 갑작스러웠다. 시험 삼아 그 宗趣를 살펴 본 즉 수행에는 닦되 닦음에 매몰되지 않고(修乎修沒修), 깨달음을 증득하되 증득함에 머물지 않았다(證乎證沒證). 고요할 때는 산이 서 있는 것 같고(其靜也山立), 움직일 때는 산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으니(其動也谷應), 無爲의 법이 유익하여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無爲之益 不爭而勝). 이에 東人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능히 고요한 이익으로써 海外를 이롭게 하되, 그 이롭게 함을 자랑하지 않으니 참으로 위대하다(도헌비).¹²¹⁾

사료 G에서 홍척이 성공적으로 선종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하나는 홍덕왕과 선강태자 등 신라왕실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의 宗趣가 도의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우선, 홍척은 자신보다 먼저 귀국한 도의의 상황을 反面教師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홍척은 도의가 왕실의 무관심과 불교계의 배척으로 북산으로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선종의 수용과 선문의 개창을 위해서는 왕실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 결과 홍척은 왕실과의 결연을 통해 선종의 전파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²⁾ 마침 그가 귀국할 당시 홍덕왕은 정치개혁과 불교계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홍척은

121) 李智冠,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앞의 책, 1993.

122) 曹凡煥, 앞의 책, 2008, 41~42쪽.

흥덕왕의 개혁정치에 협조하였고, 또 불교계의 혁신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흥척의 宗趣 즉 禪風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G)에서 흥척의 가르침으로 “朝凡暮聖 變非蔚也” 즉 “아침의 범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었는데, 변함이 차제가 있지 않고 갑작스러웠다”고 한다. 이는 禪法을 닦아 凡夫가 聖人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一超直入하는 頓悟見性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다.¹²³⁾ 그리고 흥척의 종취에 대해서는 “닦으면서도 닦음에 매몰되지 않는 修乎修沒修와 증득함에 매몰되지 않는 깨달음인 ‘證乎證沒證’을 강조하고, ‘無爲의 法’이 유익하여 다투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흔히 흥척의 선사상은 도의의 그것과 비교되어 설명되고 있다. 즉, 도의는 철저하게 남종의 종지를 강조하는 純禪의 입장이라면, 흥척은 敎와 상통하는 融禪의 입장을 견지했다거나,¹²⁴⁾ 無念이 念이 되고 無修가 修가 되는 도의와 달리 흥척은 沒念과 沒修를 전제하면서도 念과 修를 부정하지 않아 北宗禪의 경향에 가깝다고 한다.¹²⁵⁾ 그와 달리 도의와 흥척의 선은 사상적으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화방법과 정치상황, 정치세력의 상관관계가 상이했다고도 한다.¹²⁶⁾

이처럼 두 사람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당시 불교계에 대한 이들의 현실대응이 서로 달랐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즉 도의가 기존의 불교계로부터 魔語라거나 虛誕한 것으로 비판받은 것에 비해, 흥척은 無爲의 利益이 다투지 않고도 이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123) 李智冠,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앞의 책, 1993, 304쪽 주 100).

124) 韓基斗, 앞의 책, 1980, 66~68쪽.

125)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敎史研究》, 小花, 1996b, 66쪽.

126) 李啓杓, 앞의 논문, 1993, 276쪽.

는 선종을 전하는 도의와 홍척의 방법론에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禪門寶藏錄》에 실린 智遠僧統의 대화를 보면, 도의는 華嚴과의 차이점과 선종의 우월함을 내세우고 있었다.¹²⁷⁾ 그는 선종을 설명하면서 화엄을 비롯한 기존의 불교계(특히 화엄)를 비판하였고, 선종이 교학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역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그의 선포는 기존 교학체계의 논리구조를 비판하는 ‘純禪적인 입장’에서 있었다고 하겠다.

그에 비해 홍척은 도의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홍척은 기왕의 불교계와 대립·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無爲之益 不爭而勝’이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다. 홍척의 선포가 기왕의 교학(화엄)을 포용한 점은 그의 제자인 수철에게서도 확인된다.¹²⁸⁾ 이러한 사실로 보아 홍척은 남종선의 가르침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기존의 불교계를 포용함으로써 그들과의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극복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와 함께 홍척은 실상사에 鐵佛을 조성기도 하였다. 道憲은 沈忠의 요청으로 鳳巖寺에 머물 때 승려들의 거처가 아니면 黃巾賊의 소굴이 될 것이라 하고, 기와집을 짓고 사방으로 추녀를 드리워 地勢를 누르고 칠불 2구를 주조하여 위호했다. 또, 體澄이 머문 寶林寺의 경우 金彦卿이 私財를 내어 철 2,500斤으로 盧舍那佛 1軀를 주조하여 莊嚴하였다. 홍척의 칠불 조성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¹²⁹⁾ 봉암사와 같이 지세를 누르거나 보림사처럼 장엄을 위해서였

127) 《禪門寶藏錄》 권中 : 《韓國佛教全書》 제6책, 478下.

128)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299~300쪽 ; 曹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273쪽.

129) 조범환은 홍척이 칠불을 조성한 것은 일반 민중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曹凡煥, 앞의 책, 2008, 51쪽).

을 것이다. 특히, 불상의 조성은 講經·誦經·讀經·禮佛·修寺 등과 함께 대중교화를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홍척은 남종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었지만, 대중교화를 위해 불상의 조성과 같은 방편을 채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홍척이 신라하대 선종의 수용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폈다. 그는 선종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라왕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왕실을 통해 선종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종에 대한 기존 불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학을 포용하고 대중교화를 위해 방편도 채용하였다. 이는 홍척이 자신보다 앞서 귀국한 도의를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도의의 선풍(北山)을 純禪, 홍척의 선풍(南岳)을 融禪¹³⁰⁾으로 본 것은 문제의 정곡에 가깝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신라하대 禪宗(南宗禪)이 도입되고, 소위 9山禪門이 개창됨으로써 당시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종 初傳僧이었던 道義와 洪陟의 시대적 과제는 신라사회에 선종을 수용·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현실인식을 토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의는 시대를 만나지 못해 北山(雪岳)으로 은거하였으나, 홍척은 왕실의 지원으로 南岳에서 實相山門을 개창하였다. 실상산문은 소위 禪宗山門의 효시가 되었고, 이후 선종이 신라하대 불교계를 주도하는 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홍척이 실상산문을 개창할 수 있었던 배경을

130) 韓基斗, 앞의 책, 1980, 68쪽.

밝히는 것은, 신라하대 선종사의 전개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밝혀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홍척은 대략 770년대 초반에 출생하여 840년경에 입적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는 진골귀족 출신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화엄종 사찰로 출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화엄을 공부하기 위해 800년대를 전후하여 入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당시 중국에서 풍미하던 남종선을 접하고 선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馬祖 道一(709~788)의 적통을 이은 西堂 智藏(735~814)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지장의 법은 이은 홍척은 신라사회에 선종을 전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다. 아마 신라 사신의 배를 이용하여 會津을 통해 귀국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악에 주석한 것은 그곳이 회진에서 경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지이고, 자신의 연고지 부근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듯하다.

826년경(홍덕왕 1)에 입국한 홍척은 남악의 실상사에 주석했다. 실상사는 원래 화엄종 계통의 사원으로 홍척이 주석하면서 선종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홍척을 지원한 단월세력은 그와 연고가 있던 지방세력 혹은 남원에 파견된 지방관일 가능성이 있다. 남악에 주석한 홍척은 830년경(홍덕왕 5) 홍덕왕의 초빙으로 경주에 방문하여 설법하였다. 그리고 홍덕왕으로부터 國師로 책봉되었던 듯하다. 《景德傳燈錄》에 홍덕왕과 宣康태자(金忠恭)가 홍척의 제자로 기록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홍척은 홍덕왕에게 자신이 전해온 선종의 내용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을 것이다. 홍덕왕은 홍척의 설법에 공감하고 선종을 수용하였으며, 그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던 개혁정치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홍덕왕대 이후 홍척의 행적은 837년에서 840년까지 실상사에 머문 圓鑑 玄昱(787~868)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즉, 민애왕에서 문성왕

에 이르는 역대 왕들은 실상사의 현욱에게 귀의했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왕들은 실상사에 있던 홍척을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당시는 흥덕왕 사후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왕실에서는 실상사와 홍척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민애왕 때에는 회강왕에게 밀린 金均貞의 아들인 金祐徵과 그 세력이 청해진의 張保皐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김우징은 실상사의 홍척과도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민애왕은 淸海鎭과 실상사의 동향을 주시하고, 홍척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듯하다. 신무왕과 문성왕의 경우에는 홍척·張保皐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처럼 민애왕 이후 문성왕까지의 신라왕실은 왕위쟁탈전을 거쳐 즉위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홍척과 선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당시 홍척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흥덕왕이 홍척에게 귀의하고 남종선을 수용한 배경은 金憲昌의 난으로 촉발된 지방사회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선종을 주목하였고, 홍척에게 자문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불교계의 일신을 위해 선종사상과 교단 운영방식에 공감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홍척은 선종의 수용을 위해서는 신라왕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왕실을 통해 선종을 전래코자 하였다. 그 때문에 흥덕왕의 개혁정치에 적극 협조하였다. 아울러 선종에 대한 기존 불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敎學을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는 대중교화를 위해 실상사에 鐵佛을 조성하는 등 방편을 채용기도 하였다. 이는 홍척이 자신보다 앞서 귀국한 도의를 통해 얻은 反面敎師의 교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홍척은 도의와 달리 신라사회에 성공적으로 선종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신라하대 선종(남종선)의 수용은 흥덕왕의 개혁정치 추구와, 신라

왕실을 통해 선종을 수용·정착시키려는 홍척의 현실대응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홍척은 선종의 수용이라는 자신의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선종 초전승으로서 홍척의 역할은 한국 선종사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저 서

- 고익진, 《韓國古代 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곽승훈, 《統一新羅時代의 政治와 佛敎》, 國學資料院, 2002.
- 권영오, 《新羅 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2011.
- 김수태·조범환, 《全羅道 地域 禪宗山門과 張保臯》,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5.
- 김영수 편, 《實相寺誌》, 1920.
- 김창검,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曹溪宗史》-고중세편-, 조계종출판사, 2004.
-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이기동,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이수건,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1993.
- 정구복 등,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 정성본,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조범환,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 최광식,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최영성, 《孤雲思想의 脈》, 심산출판사, 2008.
- 최원식, 《新羅 菩薩戒思想史 研究》, 民族社, 1999.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한기두,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
 허홍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황선영,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 논 문

- 강재광, <文聖王代의 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造成的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권덕영,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歷史學報》 149, 1996
 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2005.
 권상로,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論文集》, 1959.
 김동수,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김복순, <眞鑑禪師(774~850)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韓國民族文化》 15, 2000.
 김수태,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
 김수태, <甄萱政權과 佛教> 《후백제와 건흥》, 百濟研究所, 2000.
 김영수,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1928.
 김영수,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 9, 1938.
 김영태,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 20, 1990.
 김영태, <九山禪門의 成立과 그 性格에 대하여> 《普照思想》 9, 1995.
 김정권,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溪寺 創建> 《湖西史學》 27, 1999.
 김두진, <불교의 변화> 《한국사》 11, 1996a.
 김두진,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敎史研究》, 小花, 1996b.
 김방룡, <後百濟와 中國과의 佛敎交流>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 문화사업회, 2004.
 김복순,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중국 유학과 활동 반경> 《역사와 현실》 56, 2005.
 김용선, <玄扈·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김창겸, <8~9세기 新羅 政治社會의 變化와 張保臯> 《대외문물교류》 창간호, 2002.

- 남동신,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2005.
- 배재훈,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009.
- 안주홍, <신라 하대 문성왕대의 정국> 《新羅史學報》 19, 2010.
- 이계표, <新羅 下代の 迦智山門> 《全南史學》 7, 1993.
- 이영호, <신라 迦智山門의 法統과 位相 인식> 《新羅文化》 32, 2008.
- 정동락, <通曉 梵日(810-889)의 生涯에 대한 再檢討> 《民族文化論叢》 24, 2001.
- 정동락, <元寂 道義의 生涯와 禪思想> 《한국중세사연구》 14, 2003.
- 정동락,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 정병삼, <深源寺 秀澈和尚塔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정선여, <新羅 中代末·下代初 北宗禪의 受容> 《韓國古代史研究》 12, 1997.
- 정선종,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2009.
- 조범환, <후백제 건원정권과 선종>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 조범환,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2, 2002.
- 조범환,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 26, 2005.
- 조범환, <新羅 下代 洪陟禪師의 實相山門의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扈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 조범환,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 조범환,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 조영록, <道義의 在唐 求法行程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57, 2010.
-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 차차식, <도의국사의 구법과 중국 선불교>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 최광식,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2006.
- 최병현,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 최병현,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25, 1975.
- 최병현, <禪宗九山の 成立과 下代佛敎> 《한국사》 3, 1978.
- 최영성,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研究》 10, 1998.
-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 콘도 고이치(近藤浩一), <南宗禪과 新羅社會> 《대외문물교류》 7, 2007.
- 한기문, <新羅末·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敎育論集》 12, 1988.
-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
- 한기문, <新羅 下代 眞鑑禪師의 活動과 梵唄 敎化의 意義> 《大丘史學》 89, 2007.
- 허형욱, <實相寺 百丈庵석탑의 五方神像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 19, 2005.
- 허홍식, <禪宗九山門과 禪門祖師禮懺文의 問題點> 《歷史敎育論集》 5, 1983.
- 황수영,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 108, 1970.

ABSTRACT

The Introduction to Monk Hongcheok's Namjongseon and His Response to Reality

Jung Dong-lak

Silsangsanmun is one sect of Zen Buddhism, which was founded as the earliest from among the so called nine Zen sect. Its founder, Hongcheok, is highly valued as the monk who first introduced Zen Buddhism, along with Doeui.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a review of how Hongcheok, the Zen monk, responded to the assignment of his times, namely, the introduction to Zen Buddhism during the Late Silla period.

Hongcheok appears to have been born around the early 770s and to have entered into Nirvana around 840. After returning to Silla in 826(the first year of King Heungdeok), he was designated to the Silsangsa(Buddhist temple) of Namak. After that, he preached Buddhism by visiting a royal family by invitation from King Heungdeok and Prince Seongang(Kim Chung-gong) around 830(the fifth year of King Heungdeok), and King Heungdeok appeared to install him as a national monk. Hongcheok advised King Heungdeok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s as well as the details of Zen Buddhism, which Hongcheok introduced.

The background in which King Heungdeok converted to Hongcheok and accepted Namjongseon was to appease the chaos of local society, which was

triggered by the uprising of Kim Heon-chang(822). Also, he seemed to have paid attention to Zen Buddhism introduced by Hongcheok in order to gain the ideological support of the political reformation. Furthermore, he appeared to be sympathetic with the operational pattern of Zen Buddhism's ideology and denomination in the reformation of the Buddhist circle.

Meanwhile, Hongcheok appeared to perceive the need for the support of the Silla royal family in accepting Zen Buddhism. He tried to distribute Zen Buddhism through the royal family, and was cooperative with King Heungdeok in reformatory politics. Moreover, so as to minimize the resistance of the existing Buddhist circle, he stuck to embracing Gyohak. In particular, he introduced expedi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teel Buddhist statue in Silsangsa for edifying the public. This was a lesson learned from a negative case, which he obtained from Doeui, who returned to Silla earlier than he.

Key words: Late Silla period(新羅下代), Zen Buddhism(禪宗), Namjongseon(南宗禪), Hongcheok(洪陟), King Heungdeok(興德王), Namak(南岳), Silsangsanmun(實相山門)

논문 투고일 : 2011. 4. 30 심사완료일 : 2011. 7. 31 게재 확정일 : 2011. 8. 16